

중국어 수사 ‘一’의 문법화에 관한 통시적·공시적 분석

이 슬 기*

<目次>

- | | |
|-------------------------------------|--------------------------------------|
| I. 서론 | 2. 현대 중국어 수사 ‘一(yi)’ |
| II. 중국어 수사 一(yi)의 문법화에
관한 통시적 분석 | III. 중국어 수사 一(yi)의 문법화에
관한 공시적 분석 |
| 1. 고대 중국어 수사 ‘一(yi)’ | IV. 결론 |

I. 서론

중국어 수사 ‘一(yi)’는 대표적인 다의어(多義詞)로서, 크게 다음의 몇 가지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① 중국어 수사 ‘一(yi)’의 다중 의미 기능:

- 我刚吃了一个苹果。(방금 사과 한 개를 먹었다.)
- 我有一个中国朋友。(나는 중국친구 한 명이 있다.)
- 我昨天一晚上都没睡了。(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한 숨도 못 잤다.)
- 一个人吃两个。(한 사람당 두 개씩 먹는다.)
- 咱说的不是一回事。(우리가 말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 这次比赛他拿了一等奖。(이번 대회에서 그가 일등을 차지하였다.)
- 冯老板一回家就叫住了五龙。(평사장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룡을 불렀다.)

* 협성대학교 웨슬리창의융합대학 초빙교수

상술한 예문 ①에 사용된 7가지 수사 ‘一(yi)’는 글자는 동일하지만 각각 서로 다른 의미기능을 지닌다. 예를 들어, ‘①-a’의 ‘一’는 ‘하나’ 의미의 수사 기능, ‘①-b’는 ‘어떤, 한’ 의미의 비한정 지시 기능, ‘①-c’는 ‘전체’ 의미의 부사 기능, ‘①-d’는 ‘매, 각각’의 대명사 기능, ‘①-e’는 ‘같다, 동일하다’의 형용사 기능, ‘①-f’는 서수 기능, ‘①-g’는 짧은 시간 내에 두 동작이 연이어질 때 매우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 기능을 지닌다. 이 밖에도, 중국어의 수사 ‘一’는 다른 명사들과 함께 ‘수량의 적음’이나 동작, 행위 ‘시간의 짧음’ 등의 의미를 주로 나타낸다.

그럼, 왜 중국어의 수사 ‘一(yi)’는 다른 수사와 달리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지니며, 이들 간의 선후 관계는 무엇이고, 동일한 형식의 서로 다른 의미 기능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또한, 이는 과연 중국어의 특수한 현상일까, 아니면 다른 언어에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언어 현상일까? 만약 후자라면, 어떠한 보편적, 개별적 규칙을 지니는 것인가?

고대 중국어에서 현대 중국어에 이르기까지, 중국어 수사 ‘一’는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된 어휘¹⁾이므로, 이제껏 많은 사전과 문법서에서 이들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시를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들 기능에 대한 분류가 통일되지 못 하였고, 다양한 기능 사이의 선후 관계와 변천 과정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제시한 문헌도 찾기 어려웠다.

본고의 최초의 문제제기는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에서 시작됐으며,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동시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통시적 관점에서 시기

- 1) 《现代汉语常用词表》(2008)에 따르면, 사용 빈도에 따른 현대 중국어 상용어휘 순위는 다음과 같다.

频序号	词语
1	的
2	是
3	在
4	一
5	不

별 문헌 코퍼스에 사용된 수사 ‘yi(一)’의 기능 및 그 수량형식을 살핌으로써 기능변천 흐름을 분석하고, 공시적 관점에서 다른 언어와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분석하여 향후 변천 흐름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어 수사 一(yi)의 문법화에 관한 통시적 분석

중국어 수사 ‘一(yi)’의 기능 변천 분석을 위해, 본고에서는 크게 고대 시기(중고: 후한, 위진 남북조, 근대: 북송, 청) 및 현대 시기의 대표적인 중국어 문헌 코퍼스를 대상으로, 수사 一(yi)의 기능 및 그 수량형식의 변천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시기별로 다음 다섯 개의 대표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시기 구분		문헌명	작가명	
고대	중고	후한	《논형(論衡)》	왕충(王忠)
		남조	《세설신어(世說新語)》	류이칭(劉義慶)
	근대	북송	《태평광기(太平廣記)》	리광(李昉) 등 12인
		청	《홍루몽(紅樓夢)》	차오쉐친(曹雪芹)
현대		《쌀(米)》	쑤통(蘇童)	

고대 문헌에 대한 분석 방법은 원문(原文)에 쓰인 ‘一(yi)’에 대한 역문(譯文)의 해석을 비교·대조하여 진행하였다.

1. 고대 중국어 수사 ‘一(yi)’

(1) 중고시기 수사 ‘一(yi)’

본고에서는 상고 시기에서 중고시기로 넘어가던 과도기인 후한(後漢)시대 왕충(王忠)이 지은 《논형(論衡)》과 남조 송나라 류이칭(劉義慶)이 지

은 후한 말 동진 시기 문인, 학자, 승녀, 무녀자, 제왕 등의 일화를 모은 책 《세설신어(世說新語)》 코퍼스를 대상으로, 중고 중국어 수사 ‘一(yi)’의 다양한 기능 및 그 수량 형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논형》에 사용된 수사 ‘一(yi)’의 두드러진 특징은 형용사 용법이 수사 용법 다음으로 많았다는 점인데, 형용사 용법의 173개 용례 가운데 ‘동일하다’와 ‘비일비재하다’ 의미의 용례가 각각 132개와 40개 사용되었다. 또한, 부사 용법의 ‘一’는 ‘일단/단번에/~자마자’ 등 시간의 짧음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 기능이 절반을 넘었고, 주로 ‘一+A+而/遂+B’의 형식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때로는’ ‘잠시’ 등의 의미 기능이 사용되었다. 또한, ‘전체/전부’ 및 ‘매, 각각’ 의미의 범위 부사 기능도 103개 용례 가운데 각각 21개와 6개 용례에 사용되었다.

- ② 夫笔之与口，一实也。《論衡·定贤篇第八十》
 (譯) 笔头快与口才好，实际上是一回事。 형(동일하다)
 (작문이 빠르고 말재주가 좋은 것은 사실상 매한가지이다.)
- ③ 纣虽恶，民臣蒙恩者非一。《論衡·艺增篇第二七》 형(비일)
 (譯) 纣王即使罪大恶极，老百姓和大臣们蒙受他恩惠的不止一个
 (주왕은 극악무도한 사람이나, 그에게 은혜를 입은 백성과 대신이 많다.)
- ④ 天之大经，一阴一阳；人之大经，一情一性。《論衡·本性篇第十三》 부사(시간)
 (譯) 天的常道，是有阴有阳；人的常道，是有情有性。 부사(시간)
 (자연의 도리는 음과 양이 있고, 인간의 도리는 감정과 본성이 있다.)
- ⑤ 冰极一冬而释，人竟百岁而死。《論衡·道虚篇第二四》 부사(시간)
 (譯) 冰过一冬而融化，人到百岁就会死。 부사(시간)
 (얼음은 겨울이 지나면 녹고, 사람은 100세가 되면 죽는다.)
- ⑥ 一宫尽惊，以为少君数百岁人也。《論衡·道虚篇第二四》 부사(전체)
 (譯) 整个宫中的人都感到吃惊，认为他有好几百岁了。 부사(전체)
 (궁내의 모든 이들이 그가 수백 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 ⑦ 二十八舍有分度，一舍十度，或增或减。《論衡·感虚篇第十九》
 (譯) 二十八舍划分得有度数，每舍大致十度，有的多一些，有的少一些
 (28사는 도수로 분류되며, 각각의 사는 약 10도로 그보다 높거나 낮다.)

지시 용법의 경우, 수사 ‘一’의 비한정 용법²⁾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대부분 목적이 위치에 출현하였고, 소수의 주어 위치 용례도 있었다. 반면, 수사 ‘一’가 주어 위치에서 한정 지시를 나타내는 예문은 거의 드물었다.

- ⑧ 吾兒在帝側，帝屬我一翟犬。《論衡·紀妖篇第六四》
 (譯) 我看到一個小孩子在上帝身邊，上帝交給我一條狄犬 (비한정 목적어)
 (내가 보니 내 자식이 신 옆에 있고, 신께서 내게 개 한 마리를 주시며)
- ⑨ 射一楊叶，百发能百中之。《論衡·儒增篇第二六》
 (譯) 他射一片楊樹叶子，百发能百中。 (비한정 목적어)
 (그가 버드나무 잎 하나를 사격하면 백발 백중이었다.)
- ⑩ 一妇之哭，崩五丈之城。《論衡·变动篇第四三》
 (譯) 一位婦人的痛哭，就能倒掉五丈城牆 (비한정 주어)
 (한 여인의 통곡이 다섯 장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 ⑪ 一夫冤而一叹，天辄下霜。《論衡·感虚篇第十九》
 (譯) 一个人被冤枉而叹一口气，天就下霜
 (어떤 이가 누명을 입어 크게 탄식을 하니 하늘에서 곧 서리가 내렸다.)
- ⑫ 一功特然，不可常行。《論衡·非韩篇第二九》 (한정 주어)
 (譯) 这一功效是特殊情况，不能经常实行。
 (이 효력은 특수한 상황이므로 자주 시행해서는 안 된다.)

〈표 1〉 《논형(論衡)》에 쓰인 수사 ‘一’의 의미기능

	형용사	한정	비한정	부사 (범위)	부사 (시간)	수사	서수	계
논형	173 (25.2%)	9 (1.3%)	155 (22.6%)	27 (3.9%)	76 (11%)	227 (33.1%)	19 (2.8%)	686

2) 사실상, ‘一(yi)’의 수사 용법과 비한정 지시 용법은 각각 품사와 의미·화용 측면의 서로 다른 범주이므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주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비한정 용법을 구분하였다:

- (1) 수사 ‘一(yi)’가 ‘어떤, 한’ 혹은 ‘某(一)’의 해석을 갖는지
- (2) 수사 ‘一(yi)’로 구성된 명사구가 후행절에 계속 되는지(예, 제시문)
- (3) 수사 ‘一(yi)’로 구성된 명사구가 존재문 혹은 존현문의 문법상 주어인지

《논형》에 출현한 ‘一’로 구성된 수량형식의 경우, 주로 명사나 동사와 결합하였는데, 양자 모두 대부분 양사의 개입 없이 ‘一+명’ 혹은 ‘一+동’의 형식으로 나타났으며, 소수 용례에서 ‘명+一’ ‘명+一+양’ 및 ‘一+양(명)+之+명’ 형식이 사용되었다. 그 중 ‘수+명’ 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흥미로운 것은 소수의 ‘수+양’이나 ‘수+양+명’ 형식에 사용된 대부분 양사가 ‘寸/尺/杯/石/合/鼎/箠/鎰/钟/度/斗/丈/步/里’ 등 모두 도량형 단위를 세는 ‘도량사’라는 점이였다. 이는 아마도 도량형을 나타내는 대다수 양사가 모두 명사 기능과 병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⑬ 又驾一马, 马又不进, 又剄而弃之于沟。《論衡·非韩篇第二九》
 (譯) 再驾一匹马, 马又不走, 他又杀掉马丢到沟里。 (수명)
 (다시 말 한 마리를 몰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자 그는 말을 죽여 도랑에 던져 버렸다.)
- ⑭ 非其道, 则一箠食而不可受人 《論衡·刺孟篇第三十》 (수양명)
 (譯) 如果不符合礼义, 连一篮子干粮也不能接受人家的
 (만약 예의에 어긋난다면, 남에게 한 그릇의 식량도 받아서는 안 된다.)
- ⑮ 仙人辄饮我以流霞一杯。每喝一杯, 数月不饥。《論衡·道虚篇第二四》
 (譯) 仙人就拿一杯“流霞”给我喝。每喝一杯, 几个月不会饿。 (수양)
 (선인이 나에게 유하주 한 잔을 주었는데, 그것을 마실 때마다 몇 개월씩 배고프지가 않았다.)
- ⑯ 孝宣皇帝之时, 凤皇五至, 麒麟一至 《論衡·指瑞篇第五一》
 (譯) 孝宣皇帝的时候, 凤凰五次出现, 麒麟一次出现 (수동)
 (이선 황제 시기 봉황이 다섯 차례, 기린이 한 차례 출현하였다.)
- ⑰ 朱丝如一寸之针, 一丸之艾也。《論衡·顺鼓篇第四六》 (수양+명)
 (譯) 朱丝好比一寸之针、一丸之艾绒也能起作用。
 (주사(朱丝)는 침 한 방, 쑥뜸 한 알 만큼 효능이 있다.)

〈표 2〉 《논형(論衡)》에 쓰인 수사 ‘一’의 수량형식

	수+명	수+동	명+수+양	수+양+명	수+양	수량지명	계
논형	295 (77.4%)	24 (6.3%)	5 (1.3%)	9 (2.4%)	38 (10%)	16 (4.2%)	381

다음으로, 《논형》과 비교하여 《세설신어》에 쓰인 수사 ‘一’의 큰 차이점은 형용사 용례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소수의 용례 모두 ‘동일하다, 한결같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반면, 부사의 기능은 다소 증가하였는데, 역시 ‘전체/전부’ 의미의 범위부사 기능과 ‘~자마자/일단/단번에’ 등 시간 부사 기능이 주를 이루고 주로 ‘一+A+便/即/而/則+B’ 형식이 사용됐다.

- ⑱ 后秀义别本出，故今有向、郭二《庄》，其义一也。《世說新語·文学第四》
 (譯) 后来向秀释义的副本发现了，所以现在有向秀、郭象两本《庄子注》，其中的内容是一样的。
 (후에 향수(向秀)의 해석 원고가 발견되어, 현재 향수와 곽상(郭象)의 《장자주(庄子注)》가 전해지며 그 내용은 동일하다.)
- ⑲ 一坐同时拊掌而笑，称美良久。《世說新語·文学第四》
 (譯) 满座的入同时拍手欢笑，赞美不已。
 (장내의 모든 이들이 박수로 환대하며 칭찬에 마치 않았다.)
- ⑳ 是外国所贡，一著人，则历月不歇。《世說新語·惑溺第三十五》
 (譯) 这是外国的贡品，一旦沾到身上，几个月香味也不会消散。
 (이는 외국에서 온 공물로 한 번 몸에 묻으면 몇 달 동안 그 향이 가지 않는다.)
- ㉑ 犹作畴日相待，一见便觉有异。《世說新語·纒漏第三十四》
 (譯) 还是像过去一样对待他，可是一见面便发现他有变化。
 (예전처럼 그를 대하였으나, 보자마자 그에게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다.)
- ㉒ 始入门，诸客望其神姿，一时退匿。《世說新語·容止第十四》
 (譯) 刚进门，旅客们望见他的神采，一下子都躲开了。
 (문에 들어서자마자 여객들은 그의 풍채를 보고 모두 바로 물러섰다.)

또한, 수사 ‘一’의 수사 기능이 다소 감소하고, 비한정 지시 기능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부분 목적어 위치에 출현하였으며, 주어 위치의 경우 수사 ‘一’ 앞에 주로 동사 ‘유(有)’가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한정 지시 기능은 극소수의 용례로 나타났다.

- ㉓ 魏武有一妓，声最清高，而情性酷恶。《世說新語·忿狷第三十一》
 (譯) 魏武帝曹操有一名歌女，她的歌声特别清脆高亢，可是性情极其恶劣。
 (위나라 무제 조조에게 기녀 한 명이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맑고 청량하였으나 성질이 매우 고약하였다.)
- ㉔ 大司马府听前有一老槐，甚扶疏②。《世說新語·任诞第二十三》
 (譯) 大司马府官厅前面有一棵老槐树；枝叶非常松散。
 (대사마 부관청 앞에 늙은 해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나뭇가지가 사방으로 뻗어있다.)
- ㉕ 有一老姬，识其非常人，~。《世說新語·任诞第二十三》
 (譯) 有一个老妇人，知道他不是一个普通的人，~。
 (한 노부인이 그를 보고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챘다.)
- ㉖ 卿一宗在朝有几人？《世說新語·规箴第十》
 (譯) 你们那个家族在朝中做官的有多少人？
 (당신 가문에 조정에서 벼슬을 하는 이가 몇이나 있소?)

〈표 3〉 《세설신어(世說新語)》에 쓰인 수사 ‘一’의 의미기능

	형용사	한정	비한정	부사 (범위)	부사 (시간)	수사	서수	계
세설 신어	5 (2.2%)	3 (1.3%)	94 (41.8%)	16 (7.1%)	45 (20%)	60 (26.7%)	2 (0.9%)	225

수량형식의 경우, 여전히 양사가 없는 ‘수+명’ 형식이 거의 80%에 달하였고, ‘수+동’형식과 ‘수+양+명’형식이 각각 ‘9.5%’와 ‘5.7%’를 차지하였다. 또한, 《세설신어》에는 ‘尺/杯/口/折/群/枚/匹/篇/番/碗/条/剂’ 등의 양사가 출현하였는데, 비록 상고 시대에 비하여 새로운 양사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나 용례가 많지 않고 여전히 도량사가 주를 이룸으로 미루어, 양사의 발전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표 4〉 《세설신어(世說新語)》에 쓰인 수사 ‘一’의 수량형식

	수+명	수+동	명+수+양	수+양+명	수+양	동+수	계
세설 신어	126 (79.7%)	15 (9.5%)	1 (0.6%)	9 (5.7%)	3 (3.8%)	1 (0.6%)	158

- ㉗ 济从骑有一马，绝难乘，~。《世說新語·赏誉第八》
 (譯) 王济的随从中有一匹烈马，非常难驾驭
 (왕제(王济)의 대군 가운데 다루기가 어려운 사나운 말이 있었다.)
- ㉘ 钟会撰《四本论》始毕，甚欲使秘公一见。《世說新語·文学第四》
 (譯) 钟会撰著《四本论》刚刚完成，很想让嵇康看一看。
 (중회(钟会)는《사본론》집필을 마친 후 바로 혜강(嵇康)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였다.)
- ㉙ 上汝一杯酒。令汝寿万春！《世說新語·排调第二十五》
 (譯) 拳献给你一杯酒，祝你寿长享万春。
 (자네에게 술 한 잔을 올려, 자네의 만수무강을 비네.)

(2) 근대시기 수사 ‘一(yi)’

본고에서는 북송시대 편찬된 중국 역대 설화집 《태평광기(太平广记)》와 청나라 차오웨친(曹雪芹)이 지은 장편소설 《홍루몽(紅樓夢)》코퍼스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근대 중국어 수사 ‘一(yi)’의 기능 및 그 수량형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태평광기(太平广记)》에 사용된 수사 ‘一(yi)’의 기능을 살펴보면, ‘동일하다, 비일비재하다’ 의미의 형용사 기능이 크게 줄어들었고, ‘전체’ 혹은 ‘매, 각각’ 의미를 지닌 범위 부사와 ‘일단, ~자마자, 단번에, 당시’ 등 의미를 지닌 시간부사의 용법도 다소 감소하였다.

- ③ 诸故吏人皆老, 而奉颜貌一如往日。《太平广记·神仙 董奉》 (형용사)
 (譯) 看到当年的同僚都变老了, 唯独董奉的容貌却和五十年前一样。
 (당시 모든 관료들이 다 늙었으나, 동봉의 용모만이 50년 전과 같았다.)
- ③ 其衣中出月寸许, 忽一室尽明 《太平广记·道术 周生》 (범위부사)
 (譯) 那衣服中露出一寸多月亮, 忽然满屋子全都亮了
 (그 옷에서 한 치 가량 달빛이 새어나오니 순간 온방이 환히 밝아졌다.)
- ③ 人之处世, 一失不可复生。《太平广记·知人 顾况》 (시간부사)
 (譯) 人活在世上, 一旦死去就不能复生。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

〈표 5〉 《태평광기(太平广记)》에 쓰인 수사 ‘一’의 의미기능

	형용사	한정	비한정	부사 (범위)	부사 (시간)	수사	서수	계
태평 광기	6 (1.7%)	6 (1.7%)	193 (53.3%)	19 (5.2%)	23 (6.4%)	107 (30%)	8 (2.2%)	362

《태평광기》 수사 ‘一’의 또 다른 특징은 목적어 위치의 비한정 용법이 크게 증가한 것이며, 극소수 주어 위치에 출현한 비한정 용법의 용례도 있었다. 특히, 두드러진 변화는 양사 사용 용례(18%)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중 ‘명+수+양’ 형식이 우세하였고, ‘수+양+명’ ‘수+양’ 형식의 용례도 증가하였다. 《태평광기》에 사용된 양사는 ‘个, 卷, 丸, 篇, 枚, 双, 升, 斗, 钩, 丈, 碗, 具, 只, 丛, 杯, 口, 章, 瓿, 位, 帖, 包, 石, 尺, 寸, 副, 钩, 瓶, 条’ 등이 있었으며, 상당수 도량형을 나타내는 양사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一)+명’ 형식이 압도적인 우위(76.8%)를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 아직 양사의 발전이 초기 단계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 ③ 骏遗以一布袍, 亦受之。《太平广记·神仙 孙登》
 (譯) 杨骏赠给他一件布袍子, 孙登就收下了。 비한정(수+명)
 (양준이 그에게 두루마기 한 벌을 주자, 손등은 바로 그것을 받았다.)

- ③④ 复与黄药一袋, 云 《太平广记·神仙 徐福》
 (譯) 徐福又给了他一袋黄色的药说 비한정(명+수+양)
 (서복은 또 그에게 황색 약 한 자루를 주면서 말했다.)
- ③⑤ 乃汲一瓶于江中, 归京献之。《太平广记·水 零水》
 (譯) 就在江中打了一瓶水, 返回京城后献给了李德裕。 비한정(수+양)
 (바로 강에서 물 한 병을 떠서 도성에 돌아가 이덕유에게 바쳤다.)
- ③⑥ 云英擎一瓿浆来, 郎君要饮。《太平广记·神仙 裴航》
 (譯) 云英, 端一瓿浆水来, 郎君要喝。 비한정(수+양+명)
 (운영은 장수 한 사발을 들고 와서 군주에게 마시게 하였다.)
- ③⑦ 俄有一赤蛇从疮出, 而入犬足中 《太平广记·医 张仲景》 비한정(주어)
 (譯) 不一会儿, 有一条红色的小蛇从疮口中出来, 进入狗脚里
 (얼마 후에 붉은 뱀 한 마리가 고름에서 나와 개의 다리로 들어가면)

〈표 6〉 《태평광기(太平广记)》에 쓰인 수사 ‘一’의 수량형식

	수+명	수+동	명+수+양	수+양+명	수+양	동+수	계
태평광기	242 (76.8%)	12 (3.8%)	30 (9.5%)	13 (4.1%)	14 (4.4%)	1 (0.3%)	315

다음으로, 《홍루몽》³⁾에서는 훨씬 더 뚜렷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우선, ‘동일하다’ 의미의 형용사 기능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시 동의의 이음절 형용사 ‘一樣’의 용법이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홍루몽》에 사용된 ‘一’의 부사 기능 또한 크게 ‘전체’를 나타내는 범위 부사와 ‘잠시, ~자마자, 한 때, 때로는’ 등 시간부사 기능으로 쓰였는데, 시간 용법의 부사 또한 ‘一時, 一舉, 一再, 一齐’ 등 이음절화 추세를 보였고, 본래 ‘一A一B’형식으로 두 개 이상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던 접속사 기능도 ‘一面’ 등 이음절화 형식으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이로써, 근대시기 수사 ‘一’의 기능이 점차 분화되고 전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본고에서는 《홍루몽(紅樓夢)》 코퍼스에서 추출된 수사 ‘一(yi)’ 사용 예문 2300여 개 가운데 600개 예문을 순서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 ㉓ 她本受一肚子委屈, 到家又受了哥嫂的气, 病上加病。 (부사, 전체)
 (그녀는 실컷 억울함을 당하고 집에서 또 형수에게 모욕을 당하니 몸져 누울 지경이었다.)
- ㉔ 一进园门, 忽然一阵风起, 吹得树叶飒飒 (부사, 시간)
 (정원 문에 들어서자 갑자기 한차례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 ㉕ 贾琏一面派人到夏家报信, 一面亲自到刑部报案。 (접속사)
 (가련은 하씨댁에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는 한편, 직접 형부에 가서 신고하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홍루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 ‘一’의 비한정 지시 용례가 상당히 많았는데, 대부분 목적어 위치에 출현하였으나 주어 위치 사용 용례도 다소 증가(12%, 291개 중 35개)하였는데, 기존과 달리 앞에 ‘有’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고, 개체양사 ‘个’ 사용 용례가 높았다. 반대로, 한정 지시 용례는 매우 적었는데, 모두 앞에 지시사 ‘这/那’의 수식을 받아 ‘这/那+一+(양)명’의 형식으로 쓰였다. 또한, ‘수+양+(명)’형식 용례 가운데 상당수(36%) 용례에서 양사 ‘个’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당시 개체 양사 ‘个’와 ‘수+양+명’ 형식의 발전 및 수사 ‘一’의 비한정 기능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맺음을 유추할 수 있다.

- ㉖ 妙玉不见了, 只在墙边找到一架软梯, 一个刀鞘 (비한정 목적어)
 (묘옥은 보이지 않고 벽쪽에 줄사다리와 칼집 하나만이 발견되었다.)
- ㉗ 我常说他们一个天聋, 一个地哑, 倒是一对儿 (비한정 목적어)
 (나는 항상 그들을 귀머거리와 병어리 한 쌍이라고 한다.)
- ㉘ 一个女孩子蹲在花下, 用簪子在地上画什么。 (비한정 주어)
 (한 여자아이가 꽃 아래 웅크리고 앉아 바닥에 비녀로 무언가 그리고 있었다.)
- ㉙ 一张榻上, 斜躺着一位老婆婆, 一个小美人给她捶腿 (비·주, 비·목적어)
 (침대 위에 한 노파가 비스듬히 누워있고 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녀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 ㉚ 这一夕话, 不仅贾母感兴趣, 连王夫人也听呆了。 (한정 주어)
 (이 말은 가모의 흥미를 끌었을 뿐 아니라 왕부인도 넋을 잃고 들었다.)

- ④⑥ 这一顿的钱, 足够一户庄稼人过一年的。
 (이 한 끼 돈이면 농부 한 식구가 1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

〈표 7〉 《홍루몽(紅樓夢)》에 쓰인 수사 ‘一’의 의미기능

	형용사	한정	비한정	부사 (범위)	부사 (시간)	수사	서수	계
홍루몽	8 (1%)	18 (2.4%)	291 (38.7%)	32 (4.3%)	111 (14.8%)	258 (34.3%)	34 (4.5%)	752

《홍루몽》 수량 형식의 두드러진 특징은 양사의 활용이 훨씬 다양해지고, ‘수+양+명’ 형식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코퍼스에서는 개체양사 ‘个’를 필두로 다양한 개체양사 ‘幅, 首, 根, 把, 条, 件, 辆, 副, 座, 册, 页, 枝, 块, 支, 朵, 句, 架, 对, 位, 张, 道, 包, 页, 根, 乘, 份, 本, 间, 指, 名, 双, 页, 头, 案, 封, 户, 阙, 门, 卷, 家, 种, 层, 处, 轮’, 집합양사 ‘堆, 班, 群, 簇, 批, 摊’, 차용양사 ‘盒, 杯, 碗, 株, 壶, 床, 盆, 盅, 串’ 추상양사 ‘片, 团, 段, 脉, 片, 缕, 口, 股, 笔’, 부정양사 ‘些, 点’, 도량사 ‘尺, 寸, 吊, 两, 斤’, 동량사 ‘次, 声, 顿, 阵, 趟, 番, 场, 台, 通, 气’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명(양)’ 형식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두 형식이 상호 교차되는 과도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⑥ 她就摇了签筒, 抽出一支签, 上面画一朵牡丹花, 写着“艳冠群芳”四字
 (그녀는 곧 제비통을 흔들어서 제비 하나를 뽑았는데, 위에는 모란 한 송이가 그려져 있고 ‘艳冠群芳(아름다운 여인)’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
- ④⑦ 每人一张高几, 放几样菜, 一盒什锦点心, 一把自斟酒壶, 岂不别致?
 (한 사람당 작은 테이블 하나에 요리 몇 개, 모두 다과 한 접시, 개인 술 주전자 하나면 더 색다르지 않겠어요?)
- ④⑧ 木上挂一条玉带, 下面是一堆雪, 雪中有一根金簪, 写着四句诗
 (나무에는 옥대가 하나 걸려있고 아래에는 눈이 쌓였는데, 눈 사이에 있던 금비녀에 시 네구절이 적혀 있었다.)

④9 谁也不知道, 此时潇湘馆已哭得一团糟

(당시 소향관이 한바탕 눈물 바다가 될 거라고 아무도 알지 못 했다.)

〈표 8〉 《홍루몽(紅樓夢)》에 쓰인 수사 ‘一’의 수량형식

	수+명	수+양	명+수+양	수+양+명	동+수+양	계
홍루몽	103 (17.5%)	67 (11.4%)	7 (1.2%)	318 (54%)	94 (16%)	589

중고시기 문헌과 비교하여, 근대시기 문헌에 사용된 수사 ‘一(yi)’와 그 수량형식의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양사 사용 및 ‘수+양+명’ 형식의 용례가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점인데, 특히 중고시기 양사가 대부분 도량형 양사인 데 반해, 근대시기 양사는 개체양사, 집합양사, 도량사, 추상양사, 부정양사, 동량사 등 다양한 양사가 보편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량형식은 여전히 ‘수+명’과 ‘수+양+명’ 형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 양사의 발전과 더불어 수량형식이 점차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사가 쓰인 ‘一+양+(명)’ 형식 용례 가운데 상당수 비중(36%)의 용례에 개체양사 ‘수’가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새로 출현한 대다수 집합양사, 추상양사, 부정양사, 동량사 등이 모두 수사 ‘一’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미루어, 수사 ‘一’ 비한정 지시 기능의 발전과 다양한 양사의 출현 및 ‘수+양+명’ 형식의 정착 사이에 상호 밀접한 유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역대 설화집이라는 특성상 상·중고시기 중국어 색채가 짙은 《태평광기》에 비하여 훨씬 늦은 청대에 집필된 《홍루몽》에서 더 다양한 양사의 활용 및 ‘수양명’ 형식의 정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현대 중국어 수사 ‘一(yi)’

본고에서는 중국 현대 대표적인 소설가 쑤통(蘇童)의 《쌀(米)》 코퍼

스4)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현대 중국어 수사 ‘一(yi)’의 기능 및 그 수량 형식을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원문 코퍼스와 한글 번역서를 참고 하였다.

우선, 근대 중국어와 비교하여 현대 중국어 수사 ‘一’의 두드러진 차이 점은 ‘동일하다’의 형용사 기능이 거의 사라지고, ‘매, 각각’ 의미를 나타내는 ‘每+一+(양)+명’형식의 대명사 기능 용례와 동시에 두 개 이상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접속사 ‘一边’의 기능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 ㉔ 一顿吃一头猪、半条牛，再加十碗白米饭
(매 끼니마다 돼지 한 마리, 소 반마리와 흰 쌀밥 열 그릇을 먹는다)
- ㉕ 五龙操起一根杠棒狠狠的敲他的头顶，一边敲一边大声说
(우룡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힘껏 그의 머리를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여전히 ‘一’로 이루어진 수량구가 대부분 목적어 위치(94.2%)에서 비한정 지시 의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앞에 ‘有’ 없이 비한정 주어로 사용된 용례도 5.8%(313개 중 18개)로 다소 증가하였다.

- ㉖ 她掏出一个绣花的小钱包，从里面抽出一张纸币朝乃芳扔过去 (비·목)
(그녀는 꽃이 수놓인 지갑을 꺼내어 지폐 한 장을 꺼내 나이팡을 향해 던졌다.)
- ㉗ 他丢失了一只明亮的眼睛，还有一根无辜的脚趾。 (비·목)
(그는 맑고 빛나는 한 쪽 눈과 무고한 발가락 하나를 잃었다.)
- ㉘ 咯嚓一声，一块旧砖掉落下来，米生的手伸到了一个洞穴里 (비·주)
(툑 소리가 나며 낡은 벽돌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미생은 한 구멍 안으로 손을 뻗었다.)
- ㉙ 他又着腰站在院子中央抬头望天，一股奇怪的气味从他的白绸裤后面隐隐飘来 (비·주)
(그가 허리에 손을 짚고 마당 중앙에 서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이상한 냄새가 그의 하얀 실크바지 뒤편에서 은은히 흘러왔다.)

4) 본고에서는 《쌀(米)》 코퍼스에서 추출된 수사 ‘一(yi)’ 사용 예문 2100여개 가운데 500개 예문을 순서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9) 《쌀(米)》에 쓰인 수사 ‘一’의 의미기능

	형용사	한정	비한정	부사 (범위)	부사 (시간)	수사	서수	계
쌀	3 (0.5%)	18 (3%)	313 (52.5%)	19 (3.2%)	18 (3%)	220 (36.9%)	5 (0.8%)	596

고대 중국어와 비교하여, 현대 중국어 수량형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양사의 활발한 사용 및 ‘수+양+명’ 형식의 정착인데, 이는 《쌀(米)》의 수량 형식에서도 현저히 나타났다. 수사 ‘一’로 이루어진 수량형식 중 ‘수+양+명’ 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개체양사 ‘수’를 비롯한 다양한 개체양사 ‘棵, 把, 节, 朵, 句, 只, 张, 件, 块, 条, 根, 包, 种, 座, 袋, 辆, 垛, 节, 担, 株, 顶’, 집합양사 ‘双, 批, 群, 排, 捆, 份’, 차용양사 ‘笔, 艘, 头, 桶, 脚, 口, 眼, 粒, 颗, 侧, 滴, 箩, 台, 把, 车, 锅, 排’, 부정양사 ‘些, 点’, 추상양사 ‘滩, 道, 丝, 股, 片, 滴, 桩, 幕, 息’, 도량사 ‘块, 升, 碗, 担, 尺, 文, 把’, 동량사 ‘阵, 下, 记, 声, 圈, 次, 顿, 场, 遍, 回’ 등이 활발히 사용되었다. 그 중, 개체양사 ‘수’의 사용 용례가 전체 ‘一+양+(명)’ 형식 가운데 거의 절반(49.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일부 ‘수+명’ 혹은 ‘수+양’ 형식은 대부분 동사 뒤에서 동량사 역할을 하며 ‘동+수+양(명)’ 형식으로 사용되어, 기존의 ‘수+명’ ‘수+동’의 어순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⑤⑥ 抱玉拖拽着一个人, 就像拖拽一只沉重的米袋。
(빠오위가 한 사람을 끌고 오는데, 마치 무거운 쌀자루를 끄는 듯 했다.)
- ⑤⑦ 一张疲惫而年轻的脸, 一双冷冷的发亮的眼睛, 它们给织云留下很深的印象。
(그의 수척하지만 옛된 얼굴과 차갑게 반짝이는 두 눈은 쓰윈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다.)
- ⑤⑧ 米生低低骂了一声, 抬起手朝窗台上一扫, 一只破瓦罐应声落地。
(미생이 낮은 소리로 한바탕 욕을 하고 손을 들어 창틀을 닦자, 낡은 항아리가 쟁그랑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 ㉟ 五龙说着, 嘴角上露出一丝自嘲的微笑。
 (우룡은 이야기하며 입가에 열은 자조적 미소를 띠었다.)
- ㊱ 他闭上眼睛就看见一片白茫茫的汪洋大水
 (그가 눈을 감자 온통 새하얀 망망대해가 보였다.)

〈표 10〉 《쌀(米)》에 쓰인 수사 ‘一’의 수량형식

	수+명	명+수+양	수+양+명	수+양	동+수+양	합계
쌀	18 (4%)	0 (0%)	327 (73.3%)	25 (5.6%)	76 (17%)	446

Ⅲ. 중국어 수사 一(yi)의 문법화에 관한 공시적 분석

그럼, 왜 중국어의 수사 ‘一(yi)’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니며 그 변천 기제는 무엇일까? 선행 연구 문헌을 통해, 우리는 수사 ‘one’의 비한정 표지로서의 문법화는 중국어 뿐 아니라 범언어적인 보편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범언어적으로 수사 ‘one’이 쉽게 문법화되는 원인과 기제는 무엇이며, 그 보편성과 개별성은 무엇일까?

Givón(1981)은 범언어적 시각에서 주로 정통 히브리어(Street Hebrew)를 대상으로 수사 ‘אֶחָד(exad, one)’의 비한정 표지로서의 변천 연구를 하였는데, 그는 수사 ‘one’ ‘some’의 비한정 표지나 존재표지로 변천은 양화사가 지시나 존재를 나타낸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왜 수사 ‘one’이 이러한 변천을 보이는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떠한 지시대상을 담화에 처음 소개할 때, 화자는 청자가 그 고유의 지시체를 식별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화자는 두 가지 모순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는 지시, 존재 의미의 새로운 논항을 담화에 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보편적 특성을 청자가 식별하게 해야 한다. 모든 수사가 존재성, 지시성을 함축하지만, ‘one’은 또한 ‘어떤 유형 중의 하나’ ‘one of the~’의 의미를 함축한다. 새로운 논항을 담화에 소개할 때,

‘one’은 존재, 지시 의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어떤 유형의 한 구성원을 나타내므로, 담화에 지시-비한정 논항을 소개하기 위한 요구와 부합된다.”⁵⁾

Heine(1997) 또한 비한정 관사는 수사 ‘one’에서 파생되었으며, 비한정 관사의 발전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1) 비한정 관사 발달의 5가지 단계:

- 1단계: 수사(numeral) - 수사 one만 있고, 비한정 표지 범주는 없음.
- 2단계: 존재 표지(presentative marker) - 청자가 알지 못 하는 새로운 참여자를 담화에 소개하는 관사. 후행 문맥에서 한정명사로 표시됨.
- 3단계: 지정 비한정 표지(specific indefinite marker) - 담회에서 화자는 알지만 청자는 식별하지 못 하는 참여자를 표시. 가산 단수명사와만 공기.
- 4단계: 비지정 표지(nonspecific marker) - 담화 참여자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식별되지 않는 대상.
- 5단계: 일반 관사(generalized article) - 거의 모든 명사 유형에 사용됨. 더 이상 단수 명사에 국한되지 않고, 복수와 불가산 명사로 확장 사용됨.

전통문법에서, 중국어는 대표적인 고립어로 관사를 갖지 않는 언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앞서 중국어 수사 ‘一(yi)’ 기능 변천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국어 수사 ‘一’ 또한 중고,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러 비한정 지시 기능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비한정 지시 기능 용례 가운데 개체양사 ‘个’의 사용이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다. 일찍이, 吕淑相(1944)는 중국어의 ‘一+양사(단위사)’ 전체를 비한정 관사로 간주하였다.

“个’는 다른 단위사와 달리 일부 언어의 비한정 관사와 유사하다.”

5) Givón, T, “On the development of the numeral ‘one’ as an indefinite marker”, *Folia, Linguistica Historica* II, 1981. 52쪽.

그러나, 중국어의 관사는 단지 ‘一’가 아니라 ‘一+단위사’ 전체이며, ‘一’이 생략되면 단위사 홀로 남는다. 그러므로, 동사 뒤 ‘一’이 생략되는 현상은 다시 말해 단위사 자체의 관사화라 볼 수 있다.”⁶⁾

이는 앞선 분석에서 중국어 수사 ‘一’의 기능 변천이 중국어 양사의 발전과 ‘수+양+명’형식의 정착과 상호 유기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우리의 결론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어의 수사 ‘一’ 또한 다른 언어처럼 수사에서 ‘비한정 표지’로 문법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개체양사 ‘个’와 더불어 ‘비한정 관사’로의 문법화를 거치고 있다고 간주한다.

우리가 중국어 수사 ‘一’이 비한정 표지로 문법화되는 과정이라 여기는 또 한가지 이유는 특히 양사와의 연계성 때문인데, 앞서 코퍼스 분석에서 본 것처럼 중국어의 양사는 상고시기 ‘个’와 더불어 대다수 명사에서 파생된 도량형 양사가 주를 이루다가, 중고 시기 이후 점차 다양한 개체양사, 집합양사, 차용양사, 추상양사, 동량사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다. 중국어 양사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孙锡信(1992)에 따르면, 서주(西周)시기 전문적인 양사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한(漢)대 이후 크게 발전하였고, 위진 남북조(魏晉南北朝)시기 개체양사가 대량으로 출현하고 당송(唐宋) 시기 양사가 풍부하게 발전하였다. 반면에, 동량사(動量詞)는 비교적 늦은 위진 남북조 시기 출현하여 당대 이후 비로소 보편화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사의 변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위진 이후에 발전한 집합양사, 차용양사, 부정양사, 추상양사, 동량사들은 앞에 수사 ‘一’와만 결합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一’가 단순히 수사가 아닌 다른 파생적 기능을 지니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王绍新(1992)은 당대(唐代) 대표 시문들을 대상으로 당대 양사를 매우 상세히 분석하였는데, 그가 분석한 다양한 양사와 예문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6) 张伯江、李珍明, 〈是 NP”和“是(一)个 NP”〉, 《世界汉语教学》 第3期, 2017, 59쪽.

- ⑥1 임시양사(자연경관): 唯留一湖水, 與汝救凶年。(白居易诗, 1118)⁷⁾
 ⑥2 도처에(과장): 一山桃杏同时发, 谁似东风不厌贫。(许浑诗, 1354)
 ⑥3 가득차다: 昨夜月明浑似水, 入门唯觉一庭香。(韦庄诗, 1764)
 ⑥4 부정양사(추상적 사물): 唯看一点火, 遥认是行舟。(白居易诗, 1116)
 ⑥5 집합양사(추상적 사물): 醉烟轻罩一团春。(李山甫诗, 1621)
 ⑥6 추상양사(추상적 사물): 孤峰引上一条烟。(刘言史诗, 1188)
 ⑥7 추상양사(추상적 사물): 如人夜眠作梦, 觉一段虚化。(变 581)

예문에서 보듯, 당대 시문에서 자연경관을 나타내는 임시명사, 추상적 사물과 결합하는 부정양사, 집합양사, 추상양사 등은 모두 앞에 파생된 다양한 용법의 수사 ‘一’와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당대에 개체양사 ‘个’는 이미 그 수식 대상이 자연경관, 추상적 사물, 심지어 비명사성 성분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양사와 달리 용법이 크게 허화되었다고 하였다. Jespersen(2014) 또한 부정관사를 ‘하나(one)’라는 수사의 무강세형으로 보았으며, 부정관사는 약화된 수사이므로 불가산명사(혹은 질량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어 수사 ‘一’의 문법화와 ‘양사’의 발전과 더불어 역사가 가장 오래된 개체양사 ‘个’의 용법이 함께 문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 중국어 수사 ‘一’는 어떠한 발전 단계에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Heine(1975)이 제시한 비한정관사의 발달 5단계와 Givón(1976a)이 제시한 수사 ‘one’의 원형 다이어그램(Wheel diagram)⁸⁾을 활용하여, 현대 문학소설 《쌀(米)》 코퍼스를 대상으로 현대 중국어 ‘一’의 기능 범주와 관사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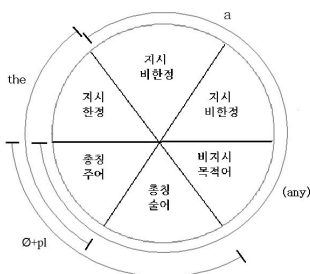
7) 예문은 王绍新, 〈唐代诗文小说中名量词的运用〉, 《随唐五代汉语研究》, 山东教育出版社, 1992.을 인용하였다.

8) Bickerton(1975a,b)는 농촌 크리올어 문법의 엄격한 범주규칙은 피진어 단계에서 원어민들의 비범주적인 삽입에 의해 생성된 것이며, Africa, Caribbeans, Hawaii의 한정적, 지시적 형태 표지의 동일한 체계는 크리올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Givón(1976a:298)은 영어의 관사 체계가 다음의 원형 다이어그램을 갖는다고 하였다:

앞장에서 본 것처럼, 《쌀(米)》에서 중국어 수사 ‘一(yi)’의 비한정 지시 기능은 목적어 위치에 출현한 용례가 주를 이루었으나, 소수의 주어 위치 용례도 있었고 그 비율은 각각 94.2%(295/313)와 5.8%(18/313)를 나타냈다. 특히, 주어 위치에 출현할 때에는 앞에 ‘有’가 쓰여 ‘有+(一)+양+명’의 형태로 쓰이는 용례도 있었으며, 총칭문(generic sentences)에서 ‘(一)+수+명’ 형식의 총칭 술어로 사용된 용례(52개)도 적지 않았다.

- ⑥8 抱玉拖拽着一个人, 就像拖拽一只沉重的米袋。 (비·목)
(빠오위가 사람을 끌고 오는데 마치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는 듯 했다.)
- ⑥9 他的双腿在桌下散漫地摇晃着, 触到了一条柔软温热的腿。 (비·목)
(그의 양 다리가 탁자 밑에서 산만히 흔들리다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다리 하나를 건드렸다.)
- ⑦0 一个头戴瓜皮帽穿西装的小男孩从树上跳下来。 (비·주)
(과피모를 쓰고 서양 의복을 한 사내아이가 나무에서 뛰어 내렸다.)
- ⑦1 有一块碎瓷片就落在绮云的脚下。 (비·주)
(깨진 도자기 파편 하나가 치윈의 발 아래로 떨어졌다.)
- ⑦2 她是个小醋坛子。(그녀는 질투가 심한 여인이다。) (총·술)
- ⑦3 他是个有出息的孩子。(그는 성공한 자식이다。) (총·술)

또한, 수사 ‘一(yi)’의 비지시 목적어 기능은 특히 최소양화 표현을 통해 부정의 강조를 나타내는 강조형식 ‘(连)+(一+양)+NP+也/都+VP’이 주로 사용되었고 총 18개 용례가 출현하였으며, 소수의 원형명사(bare noun)



〈영어의 관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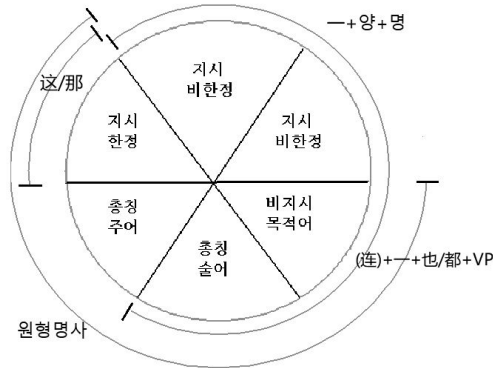
가 쓰인 용례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 ‘一(yi)’의 지시 한정이나 총칭 주어의 용법은 발견하지 못 하였다.

- ㉓ 一年的血汗就这样扔在水里了, 连一升米也没收下。 (비지시)
(1년 동안의 피와 땀이 이렇게 물 속에 버려져 한 되의 쌀도 수확하지 못 했다.)
- ㉔ 你真的是畜生, 一点廉耻也没有, 大白天的你到底想干什么? (비지시)
(당신은 정말 짐승마냥 아무 부끄러움도 모르고 벌건 대낮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 ㉕ 他像阿保, 连走路的姿势也像阿保。 (비지시)
(그는 아바오를 닮아서 걷는 자세마저도 아바오와 비슷하다.)

이 밖에, 지시 한정 기능은 주로 지시대명사 ‘这/那+(一)+(양)+NP’형식으로 대다수 주어 위치에 출현하였다. 특히, 아무런 관사의 수식이 없는 원형명사 NP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수사 ‘一(yi)’가 지니지 않은 지시 한정, 총칭 주어 기능 뿐 아니라, 총칭 술어(generic predicate)와 비지시 목적어의 기능까지 포함하였다.

- ㉖ 中医对绮云说过, 这药只管活络经脉, 不一定能治好你爹的病。
(중의는 치윈에게 이 약은 경맥 완화에만 효능이 있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지는 미지수라고 하였다.)
- ㉗ 那条小巷黑漆漆的, 什么也看不见。 (지시 한정)
(그 골목은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 ㉘ 在兵荒马乱的年月里, 南方的居民把米店当成天堂。 (총칭 주어)
(전쟁으로 어려운 시절, 남쪽 주민들은 쌀가게를 천국으로 여겼다.)
- ㉙ 女人都是头发长见识短。 (총칭 주어)
(여자들은 모두 머리카락은 길고 식견은 짧다.)
- ㉚ 兵荒马乱的饥荒岁月, 多少人成为黄泉之下的冤魂, 他们都是大傻瓜。
(전쟁으로 배고고 힘든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승의 원혼이 됐는지, 그들은 모두 얼간이다.) (총칭 술어)

이를 토대로, 우리는 현대 중국어 수사 ‘一’의 기능범주와 관사 체계를 다음의 원형 다이어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어 수사 ‘一’의 기능 범주와 관사체계〉

상술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는 현대 중국어의 수사 ‘一’가 역사적으로 상고-중고-근대 시기를 거쳐 다양한 양사의 발전과 ‘수+양+명’형식의 정착과 상호 유기적으로 변천하며,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수사에서 문법화표지로 변천하는 문법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个’와 함께 비한정 관사로의 문법화를 거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어의 비한정 관사 ‘一+(个)’는 현재 발달 4단계에 있으며, 향후 더 다양한 명사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수사 ‘一’와 더불어 기능이 더욱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대표적인 다의어 수사 ‘一(yi)’의 기능변천 및 수량 형식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통시적 관점에서 중국 고대(중고-근대)와 현대 시기 대표 문헌 다섯 편의 코퍼스를 대상으로 수사 ‘一’의 기능변천 및 그 수량형식의 유기적 변천을 살펴보고, 공시적 관점에서 문법화 이

론과 타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 그 변천기제 및 보편성과 개별성을 찾고자 하였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중국어 수사 ‘一(yi)’는 시대별로 크게 다음의 기능 변천을 거쳤다.

	형용사	한정	비한정	부사 (범위)	부사 (시간)	수사	서수	계
논형	173 (25.2%)	9 (1.3%)	155 (22.6%)	27 (3.9%)	76 (11%)	227 (33.1%)	19 (2.8%)	686
세설 신어	5 (2.2%)	3 (1.3%)	94 (41.8%)	16 (7.1%)	45 (20%)	60 (26.7%)	2 (0.9%)	225
태평 광기	6 (1.7%)	6 (1.7%)	193 (53.3%)	19 (5.2%)	23 (6.4%)	107 (30%)	8 (2.2%)	362
홍루몽	8 (1%)	18 (2.4%)	291 (38.7%)	32 (4.3%)	111 (14.8%)	258 (34.3%)	34 (4.5%)	752
쌀	3 (0.5%)	18 (3%)	313 (52.5%)	19 (3.2%)	18 (3%)	220 (36.9%)	5 (0.8%)	596

뚜렷한 변화는 중고시기에서 근대시기로 넘어가며, 수사 ‘一’의 형용사 기능이 전문 형용사 ‘一樣’ 등으로 대체되고, 서수나 대명사, 접속사 기능 또한 다른 명사와 함께 이음절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한정 지시 기능에 비해 비한정 지시의 기능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중국어 양사 및 수량형식의 변천과 수사 ‘一(yi)’의 기능은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변천하였다.

	수+명	수+동	명+수+양	수+양+명	수+양	수량之명	계
논형	295 (77.4%)	24 (6.3%)	5 (1.3%)	9 (2.4%)	38 (10%)	16 (4.2%)	381
	수+명	수+동	명+수+양	수+양+명	수+양	동+수+양	계
세설 신어	126 (79.7%)	15 (9.5%)	1 (0.6%)	9 (5.7%)	3 (3.8%)	1 (0.6%)	158

태평 광기	242 (76.8%)	12 (3.8%)	30 (9.5%)	13 (4.1%)	14 (4.4%)	1 (0.3%)	315
홍루몽	103 (17.5%)	0 (0%)	7 (1.2%)	318 (54%)	67 (11.4%)	94 (16%)	589
썰	18 (4%)	0 (0%)	0 (0%)	327 (73.3%)	25 (5.6%)	76 (17%)	446

코퍼스 분석을 토대로, 우리는 ‘一(yi)’로 이루어진 중국어 수량형식이 상고시기 양사가 없는 ‘수+명’ 형식에서, 양사가 탄생한 중고시기 이후 근대시기를 거치며 다양하게 발전하는 동시에 점차 ‘수+양+명’ 형식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았다. 유사한 시기, 수사 ‘一(yi)’의 비한정 지시 기능도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양사가 탄생한 이후 거의 모든 비한정 지시 기능의 ‘一(yi)’는 개체양사 ‘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집합양사, 차용양사, 부정양사, 추상양사, 동량사와 공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어 양사의 발전과 수량형식의 변천이 수사 ‘一(yi)’의 기능 변천, 특히 비한정 지시 기능의 발전과 상호 유기적으로 변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양사의 발전 ⇔ ‘수+양+명’ 형식 정착 ⇔ ‘一’의 비한정 지시 기능 발전
상호 유기적인 변천

셋째, 현대 중국어 수사 ‘一(yi)’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사에서 ‘비한정 표지’로, ‘一+수’는 ‘비한정 관사’로 변천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는 통시적으로 양사와 수량형식과의 유기적 변천의 결과일 뿐 아니라, 존재와 지시를 나타내는 동시에 ‘어떤 유형의 한 구성원’을 나타내는 수사 ‘一(yi)’가 지닌 고유의 특성이 인지·화용적인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생겨난 필연적인 결과이며, 그러므로 향후 일정한 문법화 경로를 따라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 오토예스퍼슨 저, 전상범 역, 《문법의 철학》, 한국문화사, 2014.
- Heine, Bernd & Tania Kuteva 저, 조서형·김원경 공역, 《언어 접촉과 유럽 언어의 변화》, 박이정, 2017.
- 杜元会, 〈说“一(壹)”〉, 《徐州教育学院学报》 第3期, 2001.
- 李宇明, 《汉语量范畴研究》, 武汉, 华中师范大学出版社, 2000.
- 刘月华等,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2001.
-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2009.
- 石毓智, 《语法化理论——基于汉语发展的历史》,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11.
- 孙锡信, 《汉语历史语法要略》, 上海, 复旦大学出版社, 1992.
- 王力, 《现代汉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2011.
- 王绍新, 〈唐代诗文小说中名量词的运用〉, 《随唐五代汉语研究》, 山东教育出版社, 1992.
- 《现代汉语常用词表》课题组, 《现代汉语常用词表》, 商务印书馆, 2008.
- 闫文文, 《特殊数词“一”的研究》, 硕士学位论文, 东北师范大学, 2010.
- 张斌, 《现代汉语描写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2010.
- 张伯江、李珍明, 〈是 NP”和“是(一)个 NP”〉, 《世界汉语教学》 第3期, 2017.
- 赵元任(吕叔湘译), 《汉语口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1979.
- Givón, T. “Definiteness and Referentiality”.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vol.4: syntax*.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6a.
- Givón, T. “On the development of the numeral ‘one’ as an indefinite marker”. *Folia, Linguistica Historica II*. 1981.
- Wright, S. and T. Givón. “The Pragmatics of Indefinite Reference: Quantified Text-Based Studies”. *Studies in Language* Volume 11,

Issue 1, 1987.

<Abstract>

This paper was intended to analyze the functional change of the Chinese numeral ‘一(yi)’ from a diachronic and synchronic perspective, which is a typical polysemy of the Chinese language.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five representative literature of the period of Ancient, Middle ancient and Modern times were selected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the function of ‘一(yi)’ used in the literature and the process of its changing, and also attempt to discover the organic cor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classifiers and ‘numeral+classifier’ form and the functional change of ‘一(yi)’. In the synchronic perspective, we tried to examine Chinese numeral ‘一(yi)’ has any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through prepare it with functional changes of the ‘one’ of the cross-language. Lastly, we attempt find out which functional change step the Chinese numeral ‘一(yi)’ is currently in, and to infer the process of its future changes.

Key Words : 一(yi), One, 수사(Numeral), 미한정 관사(Indefinite article),
미한정 표지(Indefinite marker), 문법화(Grammaticalization),
지시 미한정(Referential indefinite), 분류사(Classifier).

